

씩 안트는 법씨, 6800 농가 올농사 망쳤다

정부보급 '호품벼' 712t 불량 광주·전남 재배량 16% 달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가 보급한 품종의 법씨가 제대로 받아(發芽)되지 않아 광주·전남지역 6800여 농가들이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이 때문에 향후 수백억원대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4월 광주·전남 농민들에 따르면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가 보급한 '호품벼' 품종이 제대로 받아가지 않는 불량 법씨인 것으로 확인돼 국립종자원이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농가에 올

해 보급된 '호품벼' 품종이 712t(6833 농가)이나 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대체종자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올 가을 쌀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을 관할하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확보하고 있는 대체 종자는 1~2에 불과, 추가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영농철을 앞두고 상당수 농가가 대체 종자를 구하지 못해 1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과 전남도는

4일 화순군 하니울문화센터에서 광주·전남 시·군 농정 담당 직원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했다. 농업인 서재근(54·광주시 남구 월성동)씨는 "24만평에 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미 파종한 법씨가 불과 10% 가량만 받아져 피해 금액만 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대체 법씨도 구할 길이 없어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호품벼는 올해 광주·전남에 공급된 보급종 법씨 4555t 중 15.6%를 차지하

고 있다. 1ha에 65kg의 법씨를 파종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 면적은 1만1000여ha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일선 농가에서는 이미 파종한 모판을 폐기처분하고 자가 채종한 법씨로 모판을 다시 설치하는 등 대응안이 빚어지고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종하지 않은 종자는 회수 조치하는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며 "종자대와 상토값 등은 별도로 보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 = 최승철기자 srchoi@



어린이에 꿈과 희망을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둔 4일 광주 북구 문흥동 근린공원 숲속에서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가 재롱을 부리며 해맑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기रो에 선 민주당

변화 바라는 호남민심

진보·중도 끌어안아 정권 탈환하라

재보선 '대의' 선택...非민주의원 탄생 덧받민심 외면엔 총선 물갈이 불가피

민주당이 4·27 재·보궐선거 승리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 민심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지난 6·2 지방선거와 이후 치러진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청장 재선거 등 3차례의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호남 민심의 '탈 민주당'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예초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원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예상 밖으로 압승한 점도 호남 민심이 지역 정치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

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야권 연대 후보, 그것도 진보정당의 민주노동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민심이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아직까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순천 보선에서 내년 대선과 총선 승리를 위해 '무공천'이라는 '똥큰 결단'을 내렸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자기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순천 민심은 향후 야권연대를 통

한 정권교체라는 '대세'를 택했고,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외면한 셈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에게 참패하면서 '탈 민주당'을 경험했다. 중앙당 지도부와 간판급 의원들이 대거 지원유세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 이는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후보를 민주당이 또다시 후보로 내세운 데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었다. 지난해 7·28 남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텃밭이라고 여겼던 지역에서 민노당 후보에 고전을 면치 못하며 가까스로 어려운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도 '경선 잡음'과 이에 따른 법정 소송 등으로 민심은 급격히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후보들에

게 두 자릿수 득표율을 안겼고 7명의 무소속 자치단체장을 선택해 텃밭에서 민주당을 '실권'했다. 수십 년 동안 일당 독주를 이어온 민주당의 불만 욕구가 '민심이반'으로 이어졌던 선거였다. 이 같은 민심은 올해 초 본보와 전국 9개 대표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민 57.1%가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이 국회의원 교체를 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대적인 물갈이와 함께 지역 정치지형의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읽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EU FTA 비준안 민주당 사실상 파기

민주당은 4일 한나라당과 전남 합의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합의해도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춘석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4면> 손 대표는 "(4·27 재보선) 야권연대를 위한 정책합의의 부분을 쟁점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영 대변인은 "FTA (자체)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완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또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비준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회동,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밤 8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확인한 뒤 바로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

KHSA
심의를번호 | 2112073